효령노인복지타운 체육시설 본격 운영

북구, 내일 주민 등 300명 참석한 가운데 준공식 개최

북구는 오는 30일 오전 10시에 효령노인복지타운 내에 조성한 어르신 체육시설 준공식을 열고 본격 운영에 들어간다고 28일 밝혔다.

이날 준공식은 북구청장, 시·구의원, 광주복지연구원장, 주민 등 3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조성사업 경과보고, 유공자 표창 수여, 리본 커팅, 운동기구 시연 순으로 진행된다.

북구가 구비 8200만 원 들여 추진한 이번 체육시설은 효령노인복지타운 유휴 부지에 200㎡ 규모로 조성됐다.

균형감, 유연성, 근력 등 신체 능력 향상을 위한 어르신 맞춤형 운동기구 15종이 설치됐으며 낙상사고 등을 예방하기 위해 바닥은 탄성 소재로 시공됐다. 또한 벤치, 안내판, 수목 등 편의시설도 설치됐고 순환 운동이 가능하도록 운동기구들이 구성·배치됐다.

북구는 이번에 준공된 체육시설이 어르신들의 건강하고 안전한 여가생활 공간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건강증진, 치매예방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연계 운영할 계획이다.

/권형안 기자

광산구, 보훈대상자 장수사진 전달

호국보훈의 달 맞아 '건강 기원' 장수사진 전달 행사

광산구는 28일 '6월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촬영한 '장수사진 전달 행사'를 가졌다.

광산구는 지난 5월 관내 보훈단체 4곳의 보훈대상자 19명을 초청해 건강과 장수를 기원하는 의미를 담아 장수사진을 촬영했다.

이날 행사에 참여한 한 어르신은 "우리를 이렇게 잊지 않고 기억해 줘서 고맙다"고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광산구는 지난해부터 보훈대상자의 장수사진 촬영을 지원하고 있다.

박병규 광산구청장은 "나라를 위해 헌신하신 모든 분을 기억하고, 우리의 후손들이 그 숭고한 희생정신과 애국정신을 이어갈 수 있도록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동기 기자

노인의료-돌봄 통합지원 시범사업 개시

서구, 내달부터 '스마트 돌봄서구' 본격 추진

서구는 거동이 불편한 고령자들이 건강하고 안전한 삶을 영위해 나갈 수 있도록 7월부터 '의료-돌봄 통합지원' 시범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이번 사업은 지역사회에서 의료와 돌봄 연계를 통해 건강한 노후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시범사업으로, 보건복지부 공모를 통해 광주 서구 등 12개 지방자치단체가 선정됐다.

서구는 사업추진을 위해 75세 이상 고령자와 급성기·요양병원 퇴원환자를 중심으로 재가돌봄서비스에 방문의료서비스를 강화해 병원·시설 입원(입소)을 예방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병원 퇴원환자 연계체계 구축 ▲방문의료지원센터 운영 ▲서구재택의료센터 활성화 ▲스마트돌봄정보센터 설치 등 지역사회에서 계속 거주를 위한 연계체계를 구축해 AI·IOT·ICT와 연계한 '스마트 돌봄서구'를 만들어 나갈 방침이다. 재가돌봄으로 ▲주거지원 ▲보건의료지원 ▲일상생활지원 ▲스마트돌봄 등 광주다움 통합돌봄과 연계해 돌봄이 필요한 고령자 지속 돌봄을 지원 할 예정이다.

/조선주 기자

순천국유림, 장마·태풍대비 사방사업 완료

순천국유림관리소는 최근 급격한 기후변화에 따른 여름철 장마와 태풍 등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우기 전 올해 사방사업을 완료했다고 28일 밝혔다. 올해 사방사업은 산사태취약지역 중심 사방댐 4개소 및 계류보전사업 1.10km를 실시했다.

아울러, 사방댐·계류보전 등 59개소에 대한 안전점검을 완료했으며, 10월 15일까지 산사태현장예방단과 산사태취약지역(135개소)에 대한 주기적인 점검·순찰을 실시할 예정이다.

/순천=조순익 기자

서구 화정동 저지대 침수반복 '한숨'

'무릎까지 비' 상가 흙탕물·냉장고 고장 등…주민·상인 발 동동

밤새 200㎜가 넘는 장맛비가 내린 28일 오전 광주 서구 화정동 한 골목에서 침수 피해를 입은 상인이 물청소를 하고 있다.

"이것이 지금 몇 번째 침수여. 올해는 비도 많이 온다는디 한숨만 나오네."

밤새 약 280㎜폭우가 내린 이튿날인 28일 오전 광주 서구 화정동 상습 침수 지역 주민·상인은 반복된 침수에 분통을 터뜨렸다.

낮은 지대에 위치한 이곳은 해마다 많은 비가 오면 수해 피해를 겪고 있다. 폭우로 빗물이 집에 들어찰까 걱정, 뜬눈으로 밤을 지새운 주민들은 동이 트자 마자 삼삼오오 모여 매서운 속도로 무릎까지 물이 차오르던 지난 밤을 떠올렸다. 한 주민은 "현관 앞까지 물이 넘실댔당게"라며 긴박한 상황을 설명했다.

수십 년 째 수해 피해를 겪은 주민들은 전날 비가 온다는 소식에 소형 양수기를 골목 입구에 비치하고 모래 주머니를 상가 입구에 높게 쌓아 대비했지만 시간당 50㎜의 몰아치는 비를 감당하기엔 역부족이었다.

한 씨앗 납품 업체 사장은 흙탕물이 들어찬 바닥을 쓸며 물청소했다. 납품 상자는 전날 미리 높은 곳으로 옮겨 피해는 면했지만 곳곳에 남은 진흙 자국은 간밤의 긴박한 상황을 실감케했다.

한 우유 납품업체 상인은 들이닥친 물로 냉장고가 수 시간 동안 멈춰 애를 먹었다.

이 골목에서 34년 째 한약방을 운영하고 있는 장모(69)씨는 직접 장만한 양수기를 돌리며 바닥에 남은 물을 빨아들였다. 장씨는 올해 잦은 비 예보에 걱정부터 앞선다.

그는 "2000년 첫 침수가 시작됐는데, 이번이 아홉 번째다"며 "올해는 더 비가 많이 내린다고하는데, 앞으로 얼마나 더 피해가 클 지 갑갑하다"고 말했다.

같은 날 삼거리 내리막길에 위치한 화정동 지역 문구사도 지난 2020년 내린 유례 없는 폭우 이후 또다시 침수됐다. 하수구 물이 역류하면서 몇몇 상가 입구까지 물이 찼지만 맨홀 뚜껑을 들어내 더 큰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카페 사장 최모(60·여)씨는 " 지자체가 하수구 청소를 자주 하고 물이 내려갈 수 있는 통로를 대폭 넓혀 줬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양동시장 상인들도 폭우로 천장에 물이 새면서 상품이 젖어 발을 동동 굴렀다.

가구점과 농수산물 구역은 조립식 시설물과 지붕이 노후돼 비가 내리면 해마다 크고작은 누수 피해를 입고 있다.

상인들은 오전 내내 물이 새는 틈에 양동이를 두거나 걸레로 물자국으로 얼룩진 바닥을 닦느라 여념이 없었다.

김용목 양동시장 상인회장은 "구청에서 시장 노후 시설을 개선하고 있지만 시장 자체가 100년이 넘어 전체적인 구조물들이 노후화된 상태"라며 "시장의 미래를 위해 전체 보수가 시급하다"고 밝혔다.

서구는 이날 예정된 복합문화거점 서빛마루 개관식을 취소하고 비 피해 복구·예방에 나섰다.

서구 관계자는 "최소 인원을 제외한 나머지 공무원들을 현장에 투입해 비 피해 상황을 점검하도록 하고 있다"며 "주민 안전과 직결된 만큼 선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조선주 기자

충장축제 D-100일…청년기획단 '찐이' 본격 활동

축제 포스터·캐릭터·드레스 코드 발표

동구는 오는 10월 5일부터 9일까지 5·18민주광장과 금남로 일원에서 개최하는 '제20회 광주 추억의 충장축제'를 100일 앞두고 축제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충장축제 D-100일 기념으로 28일 '2023현장축제포럼'(한국축제감독회의·동구 공동주관)이 ▲라도삼 서울연구원 박사 ▲윤성진 세종축제 감독 ▲강영규 춘천마임축제 감독 ▲조형제 조선왕릉문화제 감독 ▲손재오 목포세계마당페스티벌 감독 ▲김백기 섬진강국제실험예술제 감독 ▲김태욱 광주 추억의 충장축제 감독 등 국내 최정상급 축제를 주도해 온 감독들이 대거 참여한 가운데 성황리에 개최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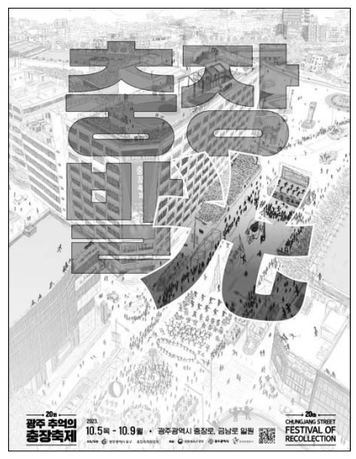
이번 포럼에서는 국내 최정상급 축제 총감독들의 다양한 실험과 도전에 대한 기록을 공유하고 충장축제 운영팀의 당면 과제를 제안함으로써 충장축제를 '지역 대표 문화 브랜드'이자 '지속 가능한 문화콘텐츠'로 정착시킬 수 있는 방안을 집중 모색하는 시간을 가졌다.

또한 올해 성년을 맞은 충장축제의 포스터와 캐릭터, 드레스 코드를 발표해 참석자들로부터 눈길을 끌었다.

축제 포스터 연작 시리즈는 광주 출신 '최용호 그림책 작가'가 참여한 6개의 연작 중 첫 번째 '금남풍광'이 공개됐다.

충장축제 드레스 코드는 누구나 즐겨 입으면서도 청춘의 상징이 되는 교복과 청 패션이 제시됐다.

이와 함께 지난 24일 충장축제를 이끌어갈 시민·청년기획단 '찐이'이 발대식을 갖고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했다. 1·2차 심사를 거쳐 최종 선발된 19명의 '찐이'는 단순 진행 요원이 아닌 축제 개최 기간 동안 핵심 프로그램의 기획부터 실행, 홍보를 전담하는 시민 참여자로 적극 활동하게 된다.

/김도기 기자

전남 '먹는물 공동시설' 수질검사 강화…내달 결과 공개

도내 약수터·공동 음용시설 수질기준 적합여부 조사

전남보건환경연구원이 야외활동이 많아지는 여름철을 맞아 도내 약수터를 비롯해 먹는물 공동시설 정밀 수질검사를 강화하고 나섰다.

28일 전남보건환경연구원에 따르면 오는 30일까지 시·군으로부터 '먹는물공동시설' 수질 검사 신청을 받아 분석 후 7월 중순 음용 적합여부를 공개·통보할예정이다.

'먹는물 공동시설'은 여러 사람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개발했거나 저절로 형성된 약수터·샘터·우물 등이다. 전남지역엔 순천 뒷골 참샘 등 약수터 46곳과 여수 고락산 등 우물 7곳, 장성 빗기촌 샘터 1곳 등 총 54곳이 먹는물 공동시설로 지정·관리되고 있다.

해당 시설은 등산 등 야외활동 인구 증가로 이용객이 많아지고, 온도 상승으로 미생물 오염 가능성이 높은 시기에 접어들어 그 어느 때보다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

수질 적합 여부는 여시니아균 등 미생물, 질산성질소 등 유기물질, 경도 등 심미적 영향물질, 납 등 유해중금속, 우라늄 등 방사성 물질을 포함한 총 47개 항목을 검사해 판단한다.

검사 결과 기준에 부적합한 시설은 해당 시·군에 즉시 통보해 일시 사용 중지토록 조치하고 있다.

김양기 전남도보건환경연구원 수질분석과장은 "약수터를 이용하는 도민과 전남을 찾는 관광객이 더 깨끗하고 건강한 물을 안심하고 마실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 호 기자

광주소방, 다목적 소방헬기 25년 만에 교체…본격 임무 투입

1997년 헬기 도입 후 처음…산불 진화 등 안전성 강화

광주시 소방안전본부가 28일 119특수구조단 119항공대에서 다목적 소방헬기 취항식을 갖고 본격적인 임무에 투입했다.

광주 소방본부는 지난 3년간 230억원(시비 115억, 소방안전교부세 115억)을 투입해 이탈리아 레오나르도사에서 제작한 AW139 기종의 다목적 소방헬기를 도입했다. 신규 소방헬기로 교체하기는 1997년 헬기 도입 이후 25년 만이다.

최대 탑승인원은 14명으로 중형과 쌍발엔진, 순항속도 280km, 항속거리 738km, 최대 3시간30분까지 연속비행이 가능해 광주 전역에서 긴급구조 임무를 수행할 수 있고, 1590ℓ의 담수용량으로 산불 진화 등 각종 화재 진압에도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게 됐다.

기존 헬기는 소형이나 단발엔진으로 항속시간이 2시간40분으로 짧고 연료 탑재량이 부족한데다 담수용량이 670ℓ에 불과해 화재 진압에 한계를 보여왔다. 자동비행 등 최신 기술력을 갖추는데도 애로가 많았다.

신형 헬기 도입으로 항공구조 임무의 효율성과 안전성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엠에스(EMS) 장비 등 각종 응급의료장비가 탑재돼 환자 이송 중 응급 처치도 가능해 촌각을 다투는 응급환자의 소생에 중차대한 역할을 담당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헬리콥터 부양장치와 공중·지상 충돌 방지장치, 지상 접근 경보장치, 기상레이더 등을 탑재해 해상비행과 계기 비행 등 임무 범위의 확대와 안전성도 한층 강화됐다.

/김도기 기자

홍영근 전남소방본부장 탄치마을 재해위험지역 방문

홍영근 전남소방본부장은 지난 27일 올해 장마 기간 대비 2021년 진상면 탄치마을에 집중호우로 발생한 비탈면 붕괴지역의 임시 복구시설 점검과 2차 재해 위험대비 현장점검을 실시했다.

2021년도 비탈면붕괴 피해로 사망 1명, 이재민 4가구 5명이 발생한 탄치마을은 사고 이후 2차 재해방지 응급복구가 완료됐다. 광양시에서 피해 주민들에게 희망하우스(임시주거시설)를 제공했으며, 해당 지역에 대해 재해위험지역으로 선정해 2024년까지 복구예정 계획이다.

광양소방서는 희망하우스에 주택용 소화기, 단독경보형감지기, 가스타이머콕 설치, 화재위험 요소를 사전에 제거하고 생활의료서비스 제공 등을 통해 삶의 터전을 잃은 피해 주민들에게 조금이나마 안전하고 쾌적한 거주환경이 갖춰질 수 있도록 소방안전서비스를 지원했다.

전남교육청 학교공간 복합시설화 추진

전남도교육청이 학교를 지역사회 공동체의 상생 거점으로 활용하기 위한 복합시설화를 추진한다.

전남도교육청은 27일 무안군 남악복합주민센터에서 시·군 교육지원청과 자치단체 업무관계자, 학교장 등 17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3년 학교복합시설 공모사업 설명회'를 개최했다.

학교복합시설 사업은 학교와 지역에서 필요한 체육관, 도서관, 문화시설 등 다양한 교육·문화·체육·복지시설을 교육청과 지자체가 협력해 조성하는 것으로 교육부 공모로 진행된다. 도교육청은 향후 5년 간 도내 모든 시·군에 1교 이상, 총 20교 유치를 목표로 하고 있다.

오는 8월 14일까지 교육부 공모에 신청해야 하며, 도교육청은 7월 중 교육청-지자체 업무협약 체결 및 희망지역 사업계획서 접수를 거쳐 8월 초 공모사업을 심사해 교육부에 신청할 계획이다.